

2015. 12. 제20호 (15-12)

경기도 청년층의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전 경 속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살고 있나?
2. 청년층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3.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은 어떠한가?
4. 앞으로의 과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20호(15-12)

발행인 한 옥 자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 쇄 지원디자인 (031-695-7687)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살고 있나?

2015년 9월 현재 경기도 15~29세 청년인구는 246만 2,8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되며, 전국 전체 청년인구 중 경기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7%로 17개 시·도 중 첫 번째로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

- 1995~2015년 전국의 청년인구 수는 평균 19%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청년인구 비율은 1995년 35.0%에서 2015년 9월 현재 19.7%로 15.3%p 감소함.
- 31개 시·군 중 경기도 평균 청년인구 비율(19.7%)보다 높은 지역은 12개 지역이며, 안산시(22.8%)와 수원시(22.0%)가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양평군(15.0%)과 가평군(15.6%)이 가장 낮음.

○ 청년층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불안정, 학자금 대출로 인한 생활고, 주거빈곤 문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 경기도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44.3%로 경기도 전체 평균 61.8%보다 월등히 낮고, 실업률은 8.9%로 전체 평균 4.0%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경기도 청년(15~29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 또는 일용직 비율이 4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 고용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2014년 정부 학자금 대출의 신용유이자 수는 전국적으로 40,635명이며, 총 부실채무금액은 2,65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53만원임.
- 경기도 청년층(20~29세)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56.5%, 전세는 33.4%로 대다수가 전·월세이며, 자가는 5.9%로 경기도 전체 1인가구 평균 23.6%보다 월등히 낮음.
- 경기도 청년층이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이며, 월평균 교통비는 11.5만원, 통근자의 66.3%가 여가시간 부족과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음.

○ 앞으로의 과제는?

-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고용정책 중심에서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청년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경기도 특화정책 및 사업의 발굴·추진** : 경기도는 도내 상주하는 인구보다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접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되어 오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청년층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나아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개발 지구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 특성이 있는 곳이므로 광활한 경기도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 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정책이 요구됨.

- **정책추진 전담조직 정비**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정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함. 현재 경기도는 청년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황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가 실행력을 갖추려면 전담부서 혹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경기도 여러 실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해야 함.
-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구축** :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정책 입안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경기도 안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을 두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함.

목 차

1.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살고 있나?	
가. 경기도 청년인구 변화추이	1
나. 시·군별 청년인구 현황	2
2.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가.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불안정	3
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생활고	6
다. 주거 빈곤 문제	7
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	7
3.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은 어떠한가?	
가. 청년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8
나. 업무부서별 청년사업 현황	9
4. 앞으로의 과제는?	
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0
나. 경기도 특화정책 및 사업의 발굴·추진	11
다. 정책추진 전담조직 정비	11
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구축	12

- 청년실업과 주거난, 생활불안정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나아가 경기도에 생활기반을 둔 청년들은 광활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긴 이동거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통근과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심신의 피로 등 부가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현안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1.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살고 있나?

가. 경기도 청년인구 변화추이

“2015년 9월 현재 15~29세 청년인구는 2,462,800명으로 2000년 2,099,315명에 비해 17.3% 증가한 반면, 청년인구 구성비는 23.5%(2000년)에서 19.7%(2015)로 3.8%p 감소”

- 2015년 현재 경기도 15~29세 청년인구는 2,462,8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 청년인구 구성비 19.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최근 1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청년인구는 2000년(2,099,315명) 대비 약 36만명(17.3%)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23.5%(2000) → 21.3%(2005) → 20.7%(2010) → 19.7%(2015)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전국 전체 청년인구 가운데 경기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월 현재 24.7%로 17개 시·도 중 첫 번째로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당되며, 그 뒤로 서울특별시(20.4%), 부산광역시(6.6%), 경상남도(6.2%), 인천광역시(5.9%) 순으로 나타남.

〈표 1〉 경기도 청년인구수 및 구성비 변화 추이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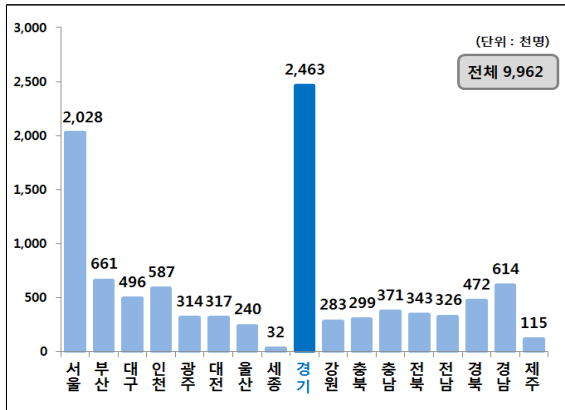
(단위 : 명, %)

행정구역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9월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전국	11,636,748	25.3	10,434,493	22.2	10,032,783	20.9	9,962,387	19.4
서울특별시	2,814,783	28.6	2,450,748	25.1	2,218,163	23.0	2,028,142	20.2
경기도	2,099,315	23.5	2,199,998	21.3	2,322,342	20.7	2,462,800	19.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9월)」,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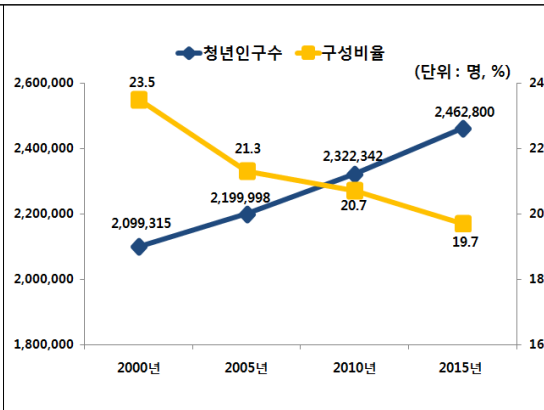
주 : 비율=시도별 청년인구수/시도별 전체인구수*100 ; 청년(15-29세)

〈그림 1〉 전국 청년인구 현황 (2015.9)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그림 2〉 경기도 청년인구 변화추이 (2000~20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201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나. 시·군별 청년인구 현황

“31개 시·군 중 경기도 평균 청년인구 비율(19.7%)보다 높은 지역은 12개 지역이며, 안산시(22.8%)와 수원시(22.0%)가 가장 높고, 양평군(15.0%)과 가평군(15.6%)이 가장 낮아”

- 2015년 경기도 전체인구는 1995년 대비 119.8% 증가한 것에 반해, 청년인구는 2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청년인구 비율은 35%에서 19.7%로 15.3%p 감소함(〈표 2〉 참조).
- 경기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인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안산시와 22.8%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양평군이 1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줌(〈그림 3〉 참조).
- 현재 청년인구 비율이 경기도 평균 청년인구 비율(19.7%)을 상회하는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성남시, 군포시, 의정부시 등 12개시임.

〈표 2〉 경기도 총 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추이 (1995/2015)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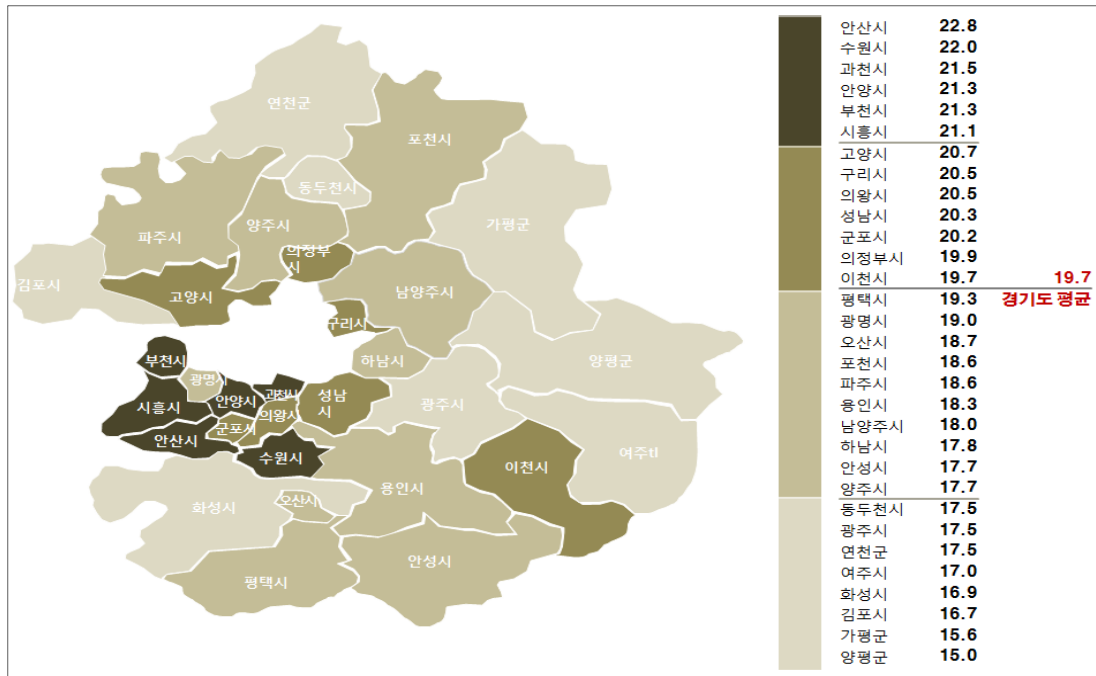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총 인구 수			청년인구 수			청년인구 비율		
	1995년	2015년	증감(%)	1995년	2015년	증감(%)	1995년	2015년	증감(%p)
전국	34,318,206	51,482,816	50.0	12,305,782	9,962,387	-19.0	35.9	19.4	-16.5
경기도	5,674,879	12,475,565	119.8	1,985,913	2,462,800	24.0	35.0	19.7	-15.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199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9월)」, 2015.

주 : 청년인구 수 증감율 = (2015년도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 1995년도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 1995년도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 100,
청년인구 비율 증감율 = 2015년 청년인구 비율 - 1995년 청년인구 비율

〈그림 3〉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 비율 (2015)

(단위 : %)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9월)」, 2015.

2.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가.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불안정

“경기도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44.3%로 전체 평균 61.8%보다 월등히 낮고, 실업률은 8.9%로 전체 평균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아”

- 2015년 3/4분기 경기도 청년(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8.6%, 44.3%로 경기도 전체 평균 경제활동참가율(64.4%)과 고용률(61.8%)보다 월등히 낮은 반면, 실업률은 8.9%로 경기도 전체 평균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 경기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45.9%)과 고용률(42.1%)보다 높지만, 경기도 청년인구의 실업률(8.9%)도 전국 청년의 실업률(8.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경기도 연령계층별 고용현황 (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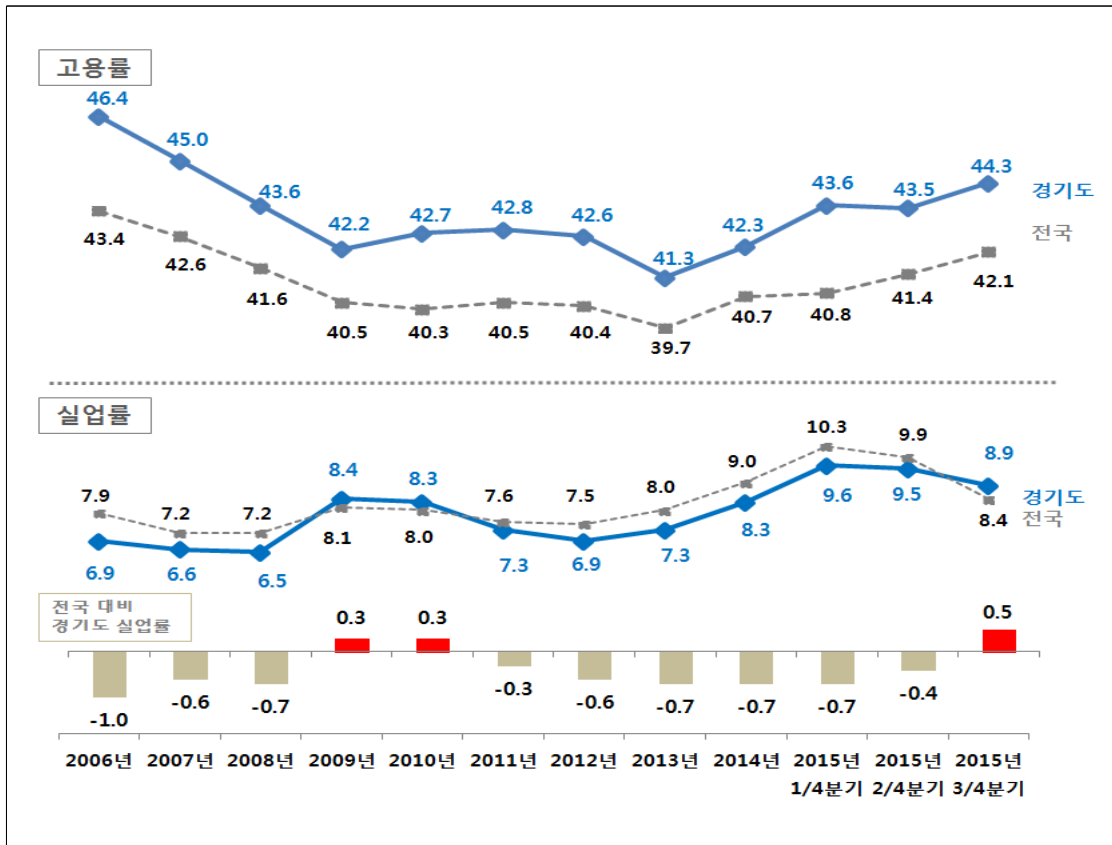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시도별	연령계층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계	43,087	27,166	15,921	26,237	929	63.0	60.9	3.4
	15 - 29세	9,490	4,358	5,132	3,991	367	45.9	42.1	8.4
	30 - 59세	24,142	18,880	5,263	18,396	483	78.2	76.2	2.6
	60세이상	9,455	3,928	5,527	3,850	79	41.5	40.7	2.0
경기도	계	10,391	6,691	3,700	6,421	269	64.4	61.8	4.0
	15 - 29세	2,352	1,143	1,209	1,041	102	48.6	44.3	8.9
	30 - 59세	6,178	4,844	1,334	4,698	146	78.4	76.0	3.0
	60세이상	1,861	705	1,157	683	21	37.9	36.7	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4분기)」, 2015.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5세이상인구)*100,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그림 4〉 전국 대비 경기도 청년(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 동향 (2006~2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4분기)」, 2015.

-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 청년(15~29세)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6년(46.4%)에서 2009년(4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41.3%)부터 현재(44.3%)까지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4> 참조).
- 전국 청년의 평균 실업률 대비하여 경기도 청년의 실업률은 2009(0.3%p), 2010년(0.3%p), 2015년 현재(0.5%p)를 제외하고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2008년(6.5%)에서 2009년(8.4%)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후 2012년(6.9%)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2015년 1/4분기(9.6%)까지 증가하였고 이 후 현재(8.9%)까지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4> 참조).

“경기도 청년(15~29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 또는 일용직 비율이 4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 고용불안정 문제에 직면”

- 경기도 사회조사(2014)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층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50.5%로 전 연령대 평균(49.1%)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4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체 평균(25.9%)보다 월등히 높아 청년층 고용불안정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
-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상용(72.5%)의 비율이 가장 높고, 임시 또는 일용(13.3%)은 가장 낮게 나타나 가장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나타냈고, 60대의 경우는 상용(22.7%)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고 임시 또는 일용(30.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층 다음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4〉 고용자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2014)

(단위 : %)

구 분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또는 일용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연령대	전 체	49.1	25.9	7.8	13.2	4.1
	15-29세	50.5	46.1	0.9	1.3	1.2
	30-39세	72.5	13.3	6.0	6.7	1.6
	40-49세	56.2	17.9	10.8	11.5	3.6
	50-59세	43.4	21.2	12.1	17.8	5.5
	60세 이상	22.7	30.8	9.3	28.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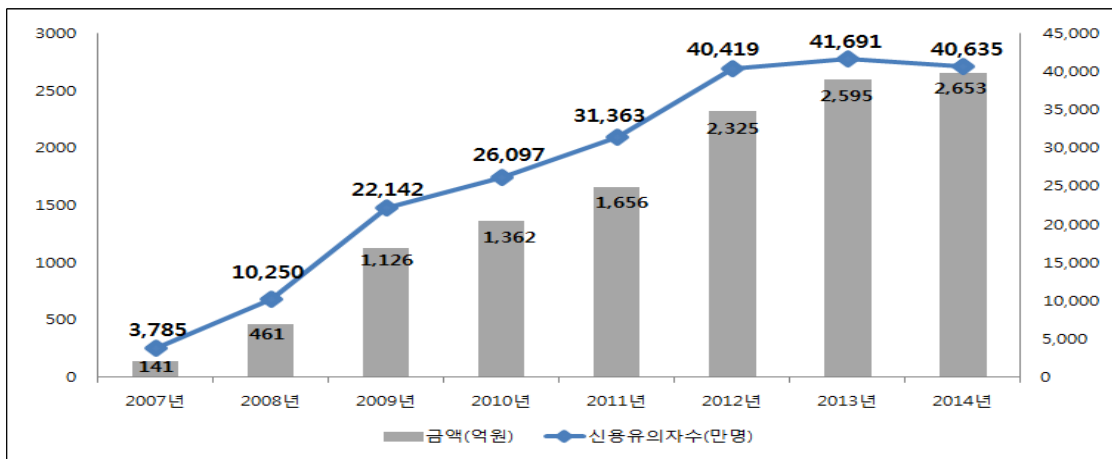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경기도 사회조사」, 2014.

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생활고

“2014년 정부 학자금 대출의 신용유의자 수는 전국적으로 40,635명이며, 총 부실채무 금액은 2,653억원으로 1인당 평균 653만원의 연체금액”

- 정부 학자금 대출의 전국 신용유의자 수는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0,635명으로 약 10.7배 증가하였고 신용유의자의 대출금액은 2014년 2,653억원으로 2007년(141억원)에 비해 약 18.8배 증가하였음. 신용유의자 수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 후 201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대출 금액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5〉 정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증감추이 (2007~2014)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보고(2014)에서 재인용.

주 : 1) 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

-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40,685명 중 50.8%가 100~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500~1,000만원(25.3%), 1,000~4,000만원(19.3%), 30~100만원 (3.3%), 30만원 미만(1.2%), 4,000만원 이상(0.2%) 순으로 나타남.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약 653원임.

〈표 5〉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분포

(단위 : 명, %)

구분	30만원 미만	30~100만원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4,000만원	4,000만원 이상	합계
신용유의자수	490	1,337	20,649	10,269	7,829	61	40,635
비율	1.2	3.3	50.8	25.3	19.3	0.2	100.0

자료 : 한국장학재단 ;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보고(2014)에서 재인용.

주 : 연체금액은 신용유의자 부실채무 등록 금액을 의미함

다. 주거 빈곤 문제

“경기도 청년층(20~29세)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56.5%, 전세는 33.4%로 대다수가 전·월세이며, 자가는 5.9%로 전체 1인가구 평균 23.6%보다 월등히 낮아”

- 2010년 경기도 전체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와 사글세가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다음으로 전세 29.8%, 자가 23.6%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29세 청년층의 경우 월세와 사글세가 5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세 33.4%, 자가 5.9% 순으로 전체 1인 가구 대비 월세와 사글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의 비중이 월등히 낮아 주거 빈곤 문제를 드러냄.
- 전국 20~29세 청년층 1인 가구에 비해 경기도 청년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의 비중이 다소 높고, 월세 및 사글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국의 청년층이 평균적으로 겪고 있는 주거 빈곤 정도보다는 다소 낮음.

〈표 6〉 청년층(20~29세)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2010)

(단위 : 가구, %)

행정 구역	연령	1인 가구 수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전국	전체	4,142,165	31.9	21.8	34.4	5.1	3.0	3.8
	20~29세	763,073	6.0	24.2	55.9	6.4	4.7	2.8
경기도	전체	777,360	23.6	29.8	37.6	4.3	1.3	3.4
	20~29세	138,614	5.9	33.4	51.1	5.4	1.0	3.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 심리적 부담

“경기도 청년층이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7분이며, 월평균 교통비는 11.5만원, 통근자의 66.3%가 여가시간 부족과 높은 피로도 호소”

- 경기청년유니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20~30대 청년의 평균 기상 시각과 귀가시각은 각각 6시 30분과 21시 17분이며, 통근 왕복소요시간은 약 2시간 47분(166.49분)으로 주로 지하철(60.0%)과 버스(38.2%)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

- 월 평균 교통비는 약 11만 5천원으로 나타났고, 서울로 출퇴근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비용)은 여가시간 부족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피로도(32.7%), 교통비 지출(20.0%)순이었음.
-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 희망업종이 부재(35.1%)하거나 직업의 비전을 위해서 (29.8%), 임금수준이 높아서(13.7%) 순으로 응답함. 또한 조사 대상 중 53.6%가 경기도 내 일 자리로의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는 장시간 및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여가 및 수면시간 부족(57.6%)과 높은 피로도(32.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7〉 경기도 청년의 출퇴근 실태¹⁾ (2015)

구 분		조사 결과
이동 시간/수단/이유	기상 시간	(평균) 6시 43분
	귀가 시간	(평균) 21시 17분
	통근(왕복) 소요시간	(평균) 166.49분
	교통수단	1) 지하철(60%), 2) 버스(38.2%)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유	1) 경기도 내 희망업종 부재(35.1%) 2) 직업의 비전을 위해(29.8%) 3) 임금수준이 높아서(13.7%)
교통비 및 손실비용	교통비	(월 평균) 11.46만원
	비용(손실)이라고 느끼는 것	1) 여가시간 부족(33.6%) 2) 높은 피로도(32.7%) 3) 교통비 지출(20.0%)
경기도 내 일자리 이직의사 및 이유	경기도 내 일자리로 이직 고민 여부	있다(53.6%)
	이직 고민 이유	1) 여가 및 수면시간 부족(57.6%) 2) 높은 피로도(32.2%)

자료 : 경기청년유니온 내부자료, 「경기도 청년노동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 2015에서 추출하여 재구성.

3. 경기도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은 어떠한가?

가. 청년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2015년 12월 현재 청년 일자리 촉진, 창업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조례와 청년기본조례 등 4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1) 경기청년유니온에서 실시한 ‘경기도 청년 출·퇴근 비용 실태조사’ 는 2015년 5월 11일~7월 2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유효표본은 110명임.

- 경기도 청년지원 관련 조례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2015. 8.13. 제정),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1.11.8. 제정),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2015.11.4. 제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09.12.31. 제정) 등이 있음.

〈표 8〉 경기도 청년지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소관부서	제정일	주요내용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2015.8.13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지원사업단 운영, 청년시설 설치·운영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정책관 경기일자리센터	2011.11.8	청년인력수급계획, 미취업자 실태조사, 취업 상담·알 선·컨설팅 지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 확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경제실 일자리정책관 기업지원과	2015.11.4	청년창업 실태조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마케팅·컨 설팅·교육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2009.12.31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수립, 우선지원, 특별지원, 중복지원 금지, 지급중지 등

-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3년 5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2015년 7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
-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도에서는 2015년 8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도지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6조 및 제7조)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연구 수행(제8조),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확대,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지원방안 강구(제11조~15조),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제17조) 및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업무부서별 청년사업 현황

-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은 경제실 일자리정책관의 경기일자리센터와 교육협력국의 교육협력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센터에서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경기 청년해외 진출 지원사업, 경기 청년뉴딜사업 등의 고용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파복기숙사, 파복 인재관 등 대학생 교육 및 주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외,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에서 청년 문화 활성화와 주거안정 및 청년여성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9〉 경기도 업무부서별 청년사업 현황 (2015.8. 현재)

실·국	부서	사업구분	사 업 명	근거법령 및 조례
경제실 일자리정책관	경기 일자리센터	고용 확대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 청년뉴딜사업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기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지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고등교육법 제7조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고등교육법 제7조
		주거 안정	파복기숙사	-
			경기도 파복 인재관 운영(송파학사)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 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문화 활성화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
	문화정책과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경기도문화진흥조례 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지원조례
도시주택실	공공택지와 도시주택과	주거 안정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지원 확대	-
사업소	경기여성능력 개발센터	취업 지원	청년층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

자료 :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내부자료, 2015, 경기도 실국별 2015년 업무계획에서 재구성.

4. 앞으로의 과제는?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특화사업의 발굴, 정책추진 전담조직 정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추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준비과정을 확고히 해야”

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고용정책 중심에서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 일자리와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금까지 청년의제를 주로 고용의 문제로 한정하고 일자리의 양적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결과임.

- 그러나 청년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정책과 결합된 고용, 노동, 주거, 문화 활성화, 참여와 권리 등의 정책 설계가 요구됨.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므로 어떻게 실행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나. 경기도 특화정책 및 사업의 발굴 · 추진

-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단과 농촌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내 상주하는 인구보다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접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되어 오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 청년층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장, 테크노밸리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특화정책 및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개발지구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 특성이 있는 곳이므로 광활한 경기도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정책이 요구됨. 예를 들어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혹은 글로벌 시민의식과 관련된 청년정책, 시흥 등 공단지역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화사업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음.

다. 정책추진 전담조직 정비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정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함. 2015년 8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 후 청년업무는 현재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에서 별도의 인력배치 없이 담당하고 있음.
- 2016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경기도 여러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것

이 바람직함. 현행 경기도 행정조직 여건 상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부서 내 전담팀을 두고 최소인력을 배치하여 청년업무가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경기도의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관장할 것인지, 남부와 북부의 연계망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컨트롤 타워 구성 시 포함되어야 함.

라.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구축

-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정책 입안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의 시도가 첫 번째 모델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선 5기 때 청년을 모아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주체인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경기도 안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을 두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함.